

# 옷 발효식품 육성 '속도전'

### 임실군, 사업 성공위해 행정·사업단·농가·연구기관 간 시스템 구축

임실군이 옷을 이용한 건강기능성 발효식품 육성사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은 특히 6차산업화를 위한 향토산업육성에 집중하면서 옷을 이용한 지역전략식품산업의 전국 브랜드화를 향한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임실군이 순창군과 함께 추진 중인 옷 발효식품 가치창조 사업은 전북도가 공모한 '2017년 지역전략식품육성사업'에 선정, 5년간 국비 30억원을 포함해 총 66억원을 투입해 미래형 6차 산업화를 주도해 나간다.

올해 본격적으로 시동을 건 이 사업은 임실군이 추진 중인 옷 재배단지 조성사업과 맞물려 제품개발과 판로 개척 등 옷산업 전반에 걸친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임실군의 사업 추진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지난 24일에는 임실치즈&식품연구소와 함께 옷 발효식품에 대한 소비자트렌드 조사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이에 따른 향후 신제품개발의 방향성을 논의했다.

이미 지난 1월 사업단 구성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군은 내년부터 신제품



임실군이 옷을 이용한 건강기능성 발효식품 육성사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에 돌입한다.

또한 내달 조직화 교육을 거쳐 행정과 사업단, 농가, 연구기관이 체계를 이룬 시스템화된 사업추진 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다.

옷 발효식품 사업은 임실군 농업의 최대 강점 중 하나인 금정마을의 옷 재배단지 조성 등 옷 재배 면적의 지속적인 확대에 따른 연계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를 위해 군은 이 사업을 통해 옷의 건강기능성 개발 인정 및 옷과 장류제품을 연계한 고부가 가치 식품 개발과 생산·판매시설, 홍보 마케팅 등을 지원한다.

특히 원가절감과 생산공정 표준화로

가격 경쟁력을 높여 옷을 활용한 저염, 기능성 발효식품 및 식품 포장재 연구개발 사업을 집중 육성한다.

또한 올해 순창군과 공동 사업단을 구성하고 내년부터 본격 추진에 나서며 임실치즈&식품연구소 등 산·학·연·관의 공동참여로 효율성을 높여나가고 있다.

심 민 군수는 "옷을 활용한 신제품 개발과 유통, 가공시설을 갖춰 옷의 부가가치를 높여 농가소득을 증대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할 것"이라며 "옷을 이용한 지역전략식품산업을 전국적인 브랜드로 만들어 나가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중영 기자



## 5월 끝자락 불우아동과 함께

### 임실군, 진로 직업체험 등 프로그램 진행

임실군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청소년과 지역내 불우아동들을 위해 이색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 26일 임실군은 관중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의 진로직업역량 강화를 위한 진로직업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 프로그램은 임실군이 주최하고 임실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주관한 것으로 청소년 시기에 다양한 직업군을 체험토록 함으로써

진로에 대한 폭 넓은 이해와 경험을 통한 미래 직업 선택의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홀랜드(Holland)박사의 '직업적 성격 유형' 이론에 따라 관습형(Conventional) 유형을 주제로 전주교도소에서 진행됐다.

전주교도소의 협조아래 현장에서 근무하는 교정직 공무원과의 만남을 통해 직업의 전망과 갖추어야 할 소양과 덕목에 대해 배우게 되며, 교정시설 참관을 통해 수용시설 내부를 직접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27일에는 임실군 청소년수련원 방과후 아카데미를 진행했다. 40여명의 청소년이 참여한 가운데 휴과 함께한 감각체험과 관중면도화지에서 도예체험 활동등을 실시했다.

이번 체험을 통해 전통도자기를 생산하는 전 과정을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었다.

특히 이번 체험활동은 우리 지역 자원과 연계하여 청소년들이 애항심을 고취하고 향상시킨다는 점에서 뜻깊은 주말체험활동이 됐다.

임실군은 또 엄마가 없는 조손 및 조손 및 부자가장대상 아동의 일일엄마와 소소한 여행을 다녀왔다.

27일과 28일에 1박2일 동안 평소 따뜻한 엄마품이 그리웠던 조손 가정 및 부자가정의 아동의 일일엄마가 된 드림스타트 아동통합사례관리사와 함께 소소하면서도 즐거운 여행길에 올랐다.

임실=진중영 기자

## 지역 소식통

### 장낙원 판사 남원명예시민증 수여

장낙원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남원시를 방문해 명예시민증을 받고 남원시 명예시민이 되었다.

장낙원 부장판사는 2015년 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청소년 선도 및 불우 이웃돕기에 앞장섰으며 남원시 주요 행사와 관공지, 문화재 등을 지원 관계인과 지인에게 널리 알려 남원 홍보와 관광역유치에 이바지하였고 남원시 주요 관광지 환경 정비, 행락질서지킴이 등을 적극 추진하여 범시민운동으로 확산시키는데 최선을 다했다. 또한 민원인과 소통하는, 열린 법원 만들기를 적극 추진하여 민원인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 순창지역 초등학교 순창 방문

순창군 팔덕 초등학교 등 3개 학교 3학년 학생 16명이 최근 순창군청을 방문해 행정과등 주요 실과를 방문해 순창군에서 하는 일과 순창의 역사 및 유래 등 지역 특성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학생들은 "작은 목욕탕은 모든 면에 있나요?", "키누는 어디가면 탈 수 있나요?" 등 평소 궁금했던 내용을 질문하였고 담당과장들은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알기 쉽게 질문에 답해주며 궁금증을 해소시켜 주었다.

또 군 의회를 방문한 학생들은 '다음 방문 체험장을 어디로?'란 주제로 열린 회의를 진행하며 민주주의의 중요으로서 체험도 진행했다.

순창=이왕원 기자

### 남원시, 지방세 ARS납부 서비스 시행

남원시는 365일 24시간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 ARS 간편 납부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해 오는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ARS 간편 납부서비스는 365일 24시간 대표전화 국번없이 1522-4449번호를 통해 주민들이 신용카드 및 휴대폰 소액결제, 가상계좌 안내 등을 받을 수 있고 납부결과를 문자메시지로 언제 어디서나 받아볼 수 있는 윈스톱(One-Stop) 시스템이다.

그동안 스마트 웨탁스(Smart Wetax) 등 인터넷을 이용한 납부의 경우 사용자 인증 등 컴퓨터 사용이 익숙지 않은 노인들이나 컴퓨터가 없는 소외계층은 사용율이 저조한 실정이었다.

남원=유영철 기자

구독문의 288-9700

# 농촌 주거환경 개선으로 삶의 질 높인다

### 순창군, 56억원 투자 사업 시행... 6월 추진 주민복지사업에 6억5000만원 투입

순창군이 올해 총 62억 5천만원을 투자해 농촌 집수리 등 군민 주거환경 개선에 나서 군민 삶의 질이 대폭 높아질 전망이다.

농민들이 직접 주거하는 집을 수리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한다는 점에서 군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지수가 높다.

군이 추진하는 사업은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주거복지사업이다.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은 총 56억원을 투자하며 농촌주택개량 90호, 빈집 정비 98호가 사업 대상이다. 군은 이미 111호에 대한 사업을 완료했거나 사업추진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히고 있다.

농촌주거복지사업은 실질적으로 생활환경이 어려워 집수리에 염두를 내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주거급여수선 집수리 59호, 농촌장애인 주택개조 8호, 희망의집 고쳐주



순창군이 올해 총 62억 5천만원을 투자해 농촌 집수리 등 군민 주거환경 개선에 나서 군민 삶의 질이 대폭 높아질 전망이다.

기 136호에 보조 지원한다. 총사업비는 6억 5천만원이다. 농촌장애인 주택개조 사업은 한국토지공사와 지역자활업체와 함께 추진해 효율성을 높인다.

3월 업무협약을 마치고 6월부터 본격 착수한다.

군은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해 11개 읍·면장 중심으로 현장지도와 강화할 계획이며 사업추진 상황을 분기별 사업별로 일일이 점검해 늦어도 올해 11월까지 모든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순창=이왕원 기자

## 임실군, 생활폐기물 야간 특별단속 실시

임실군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생활폐기물 야간 특별 집중 단속'에 팔을 걷고 나섰다.

군은 생활폐기물 부적정 배출행위의 지속적인 단속 및 홍보에도 불구하고 비정상 배출행위가 지속됨에 따라 내달 6일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임실읍 지역을 시범지역으로 지정하고 읍사무소 직원과 환경보호과 직원 32명으로 8개 단속반을 편성했다.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이동식 단속 장비를 휴대한 2개조를 투입, 일정한 간과태료 부과대상 스티커를 부착하

고 분류 배출 지도를 실시한다.

부적정 행위가 지속될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항목은 ▲종량제 봉투 미사용 배출 ▲음식물 및 재활용품 혼합배출 ▲미신고 폐기물 배출행위 등이다.

특히 불법투기 신고 포상금 제도를 확대 운영하며 상시 투기 지역을 중심으로 이동식 단속 장비를 설치하고 이장회의 및 마을방송 등을 통해 홍보에 집중할 예정이다.

임실=진중영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치즈**

별기에 출신 지정한 신부(Didier '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